

「石潭野史·日記」에서 「經筵日記」까지 刊行過程의 思想的 推移 研究

俞 成 善 *

<目 次>

- | | |
|--|------------------------|
| I. 시작하는 말 | III. 板本の 思想的 推移 |
| II. 「石潭野史·日記」에서 「經筵日記」까지
刊行過程의 板本 및 標題 檢討 | IV. 思想的 推移에 관한 檢討 및 結論 |

<국문 초록>

본 논고의 목적은 「석담야사·일기」에서 경연일기」까지 간행과정의 사상적 추이를 연구하는데 있다.

조선조 유학자들은 평소에 고민했던 공·사적인 일을 꼼꼼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기체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율곡 이이의 일기체인 필사본과 정본 등을 탐독하였다. 「경연일기」는 율곡 이이가 46세 때 완성한 것으로 17년간에 걸쳐 경연에서 군신간에 논란이 되었던 당시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에 관한 비밀과 세밀한 편년체의 일기체 기록이다. 이 기록은 간행본인 「경연일기」라는 표제 이외에도 일명 「석담일기」, 「석담야사」, 「석담유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워 왔다. 「경연일기」는 율곡 선생이 직접 정사에 참여하여 목도한 사실들을 사회개혁에 적용한 율곡의 사회사상을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본 논고의 체제는 『전서』와 판본 및 표제 검토, 판본의 사상적 추이, 사상적 추이에 관한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석담일기」 및 「석담

* 강원대학교 철학과 교수 / ssyooj@kangwon.ac.kr

야사』와 「경연일기」로 불리는 명칭의 문제 고찰과 「경연일기」의 표제와 진위문제 검토 및 결론에 있다. 또한 더 연구·진작되어야 할 문제지만 권수와 내용의 동이문제이다. 「경연일기」는 「석담일기」와 동일한 표제를 지니고 있으며, 「경연일기」는 『율곡전서』 판본의 표제이지만 「석담일기」 또는 「석담야사」는 정식 판본이 아니라 여러 식자들에게 필사되어 읽혔음을 알 수 있었다. 논자는 이러한 간행본과 간사본의 체제에 의문을 품고 「경연일기」와 「석담야사」의 명칭 및 특징을 판본의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경연일기」가 언제 어떤 형태로 『율곡전서』에 수록되어 간행되었는지의 편찬자의 사상사 연맥 계보도 그려 보았다. 따라서 『율곡전서』 간행본의 판본문제와 「석담일기」 등의 필사본 체제를 정리해 보았으며, 『조선왕조실록』 및 『한국문집총간』 등의 「경연일기」와 「석담일기」 수록의 해석문제도 다소간 살필 수 있었다.

본 논고에서는 율곡 자신의 학문과 사상, 나아가 정치적 이념과 경세에 대한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서술한 경세서의 일기체를 살필 수 있었다. 논자는 「경연일기」의 체제와 사상적 추이를 사마천의 『사기』와 견주어 보았다. 민감하고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는 후일 율곡학파들은 표제 선정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는 당시 시대의 문제이자 사상의 추이에 관한 전개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연일기」가 「석담일기」 등으로 병칭되어 불려왔듯이 그것이 공적 일기인지 사적일기인지 아니면 正史인지 野史인지의 문제도 인물평 및 비판론과 관련하여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주제어】 석담야사, 석담일기, 경연일기, 간행과정, 야사

I. 시작하는 말

조선조 유자들은 평소에 고민했던 공·사적인 일을 꼼꼼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기체를 기록하곤 하였다. 그 중에 율곡 선생의 「經筵日記」는 일기체의 효시라고 보여진다. 이 밖에도 경연일기체는 澤堂 李植(1584-1647)의 『澤堂別集』에 실린 「經筵講義」와 金字顛(1540-1603)의 『東

岡集』에 실려 있는 『經筵講義』가 그것이다. 박세채(1631-1695)가 중국의 程子와 주자가 經연관으로 재직할 때 황제에게 올린 말과 글을 편집한 「經筵故事」가 있다. 또한 1719년(숙종 45년) 李禧朝(165-1724)가 이를 본떠서 조광조·이황·이이·성혼·김장생 등 조선시대 5명현이 經연에서 아뢴 말을 엮은 「續經筵故事」가 있다. 사적이고 공적인 기사를 매일의 일기체로 남긴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와 조중희(1811-1782)의 공적인 일기인 「입조일기」, 소현세자부터 순조년간의 왕세자 일기인 「동궁일기」, 영정조 기간 영의정을 지낸 청사 김재로(1682-1759)의 「청사일기」 등이 있다.

「經筵日記」는 율곡 이이가 46세 때 완성한 것으로 명종 20년(乙丑, 1565)-선조 14년(辛巳, 1581), 즉 저자가 30세-46세 때까지 17년간에 걸쳐 經연에서 군신간에 논란이 되었던 당시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에 관한 비밀과 세밀한 편년체의 일기체 기록이다. 이 기록은 간행본인 「경연일기」라는 표제 이외에도 일명 「石潭日記」, 「石潭野史」, 「石潭遺事」라는 명칭으로 불리워 왔다. 조선조 대표적 야담집인 『大東野乘』 14-15권에는 「석담일기」로 표제되어 수록되기도 했다. 이 책을 단적으로 설명한다면 율곡 저술 중의 秘笈인 셈이다. 「경연일기」 1권에는 1565-1571년까지 7년간, 2권에는 1572-1576년까지 5년간, 3권에는 1577-1581년까지 5년간의 經연과 강론 내용을 각각 서술하고 있다. 『율곡전서』 28-30권에는 「경연일기」라는 제목으로 수록이 되어있다.¹⁾ 「경연일기」의 내용은 經연에서의 강연보다는 당시의 주요쟁점과 정계 동향을 편년체로 기록한 대부분의 정치·사상사적인 평론기록이다. 따라서 「경연일기」는 율곡 선생이 직접 정사에 참여하여 목도한 사실들을 사회개혁에 적용한 율곡의 사회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²⁾

1) 李珥, 『栗谷全書』 2, 「經筵日記」, pp.98-227.

「경연일기」는 「석담일기」 등과 동일한 표제를 지니고 있다. 「경연일기」는 『율곡전서』 판본의 표제이지만 「석담일기」 또는 「석담야사」는 정식 판본이 아니라 여러 식자들이 필사하고 읽히면서 붙여진 필사본의 표제이다.³⁾ 그리고 논자는 필사본인 「석담일기」와 「석담야사」를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채록할 기회가 있었다. 논자는 이러한 간행본과 필사본의 체제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판본’과 ‘표제’의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경위로 「경연일기」와 「석담일기」 및 「석담유사」, 「석담야사」와 같은 명칭이 붙여졌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곡전서』 간행본의 판본문제와 「석담일기」 등의 필사본 체제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및 『한국문집총간』 등의 「경연일기」와 「석담일기」 수록의 문제도 검토해야만 한다.

-
- 2) 본 論考는 「『經筵日記』의 板本 및 標題에 관한 書誌的 檢討」,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栗谷學會, 2009.와 郷土古典學을 다룬 韓國漢文古典學會 冬季學術大會(2011.01.18) 發表文인 「『經筵日記』 板本の 思想的 推移 研究」를 修訂·補完하였음을 밝혀 둔다. 본 論考에 관한 先行研究는 다음과 같다. 崔英成, 「『石潭日記』의 筆法과 栗谷의 經世思想」, 『儒敎文化研究』 제13집, 儒敎文化研究所, 2008.; 高旻廷, 「李珥의 「石潭日記」에 대한 書誌學的 檢討」, 『全北史學』 32호, 전북사학회, 2008.; 남달우, 「宣祖 初期(1567-1581)의 政局과 士林; 李珥의 「經筵日記」를 中心으로」, 『인하사학』 1, 인하역사학회, 1993.; 황준연, 『李栗谷, 그 삶의 모습』, 서울대출판부, 2000.; 황의동, 『栗谷思想의 體系的 理解』 2, 서광사, 1998.; (社)栗谷學會, 『栗谷學研究叢書』(論文編8經世), 원영출판사, 2007.; 兪成善, 「『經筵日記』의 板本 및 標題에 관한 書誌的 檢討」,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栗谷學會, 2009.; 崔英成, 「『石潭日記』의 歷史意識과 敘述方法」,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栗谷學會, 2009.; 신하령, 「『石潭日記』를 통해 본 栗谷의 當代 人物評」,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栗谷學會, 2009.; 김우형, 「『石潭日記』에 나타난 栗谷의 災異觀」,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栗谷學會, 2009.
- 3) 「經筵日記」는 『栗谷全書』에 正式으로 板本으로 刊行되기 이전에 『石潭日記』·『石潭野史』·『石潭遺事』라는 題名으로 畿湖學派 儒學者 사이에 비밀리에 은밀하게 필사되어 유통되어 읽히고 전해졌다.

石潭野史
 明宗大王二十年七月十三日大雨王文定王后之喪
 將發引禮曹判書尹春年議請百官乘馬隨 梓宮大
 臣或有主其議者 旨曰都門內乘馬隨大輦非古喪
 禮議乃止十五日下 玄宮上以疾不獲隨與我朝
 禮文若自 上不會葬則立主之時當以三公為殿官
 代行 上行禮是時左議政沈通源右議政李瑄在山陵
 不復啟禮使吏曹差參贊朱麒壽為殿官識者尤其發
 禮二十八日卒哭自 上及百官皆著黑笠識者眼其
 浸吉之速蓋我朝喪禮不盡合三代之制若比中國則

今 上寶錄卷之一
 隆慶元年丁卯
 六月辛亥夜
 上大漸
 急召大臣領議政李汝慶沈通源等入見于寢殿
 不省事汝慶等進南大聲曰臣等乘 上不應使史官
 王二人名舉子 上前亦不視無加也何汝慶等乃啟
 王曰事已至此當定社稷之計 主上不能顧
 中殿須有指揮 王曰答曰乙丑年曾得 上吉
 此人為嗣二人拜曰社稷之計定矣俄而二人出
 院承旨李瑄亦至會于廣廳是時 明宗昇遐大臣使
 持士迎今 上于德興邸陽元只度往迎之命
 票君而往出黃大度靴陽元帶問台物以

1. 「石潭野史」, 江陵迎日鄭氏家江原大韓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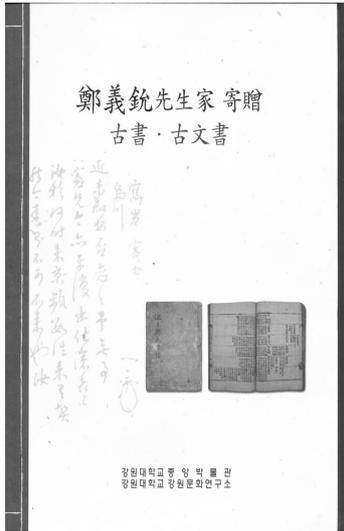
2. 「石潭日記」, 春川南陽氏家江原大韓博物館

최영성 교수는 「석담일기」를 율곡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저술로 ‘동방의 春秋’라는 극찬을 받으며, 野史 정도로 보기에는 筆法이 너무도 엄정하며,⁴⁾ 『춘추』에서 말한 筆削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관이 史草를 가지고 실록을 편찬하듯, 남겨둘만 한 것은 남겨두고 뺄 것은 빼고 추기할 것은 추기하며, 내용의 詳略簡繁을 조절하여 보완하는 등, 『춘추』의 예에 따라 율곡 자신의 經世大志를 후세에 전하는 데 절실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뽑아 재구성한 것 같다고 진단하고 있다.⁵⁾ 논자는 여기에 『춘추』를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년?-기원전 86년?)의 『史記』의 筆法을 덧붙이고자 한다. 논자가 보기에 「석담일기」는 『사기』처럼 일목요연한 연표나 서문, 발문, 범례가 없지만 기탄 없는 인물평과 褒貶 등은 『사기』와 체제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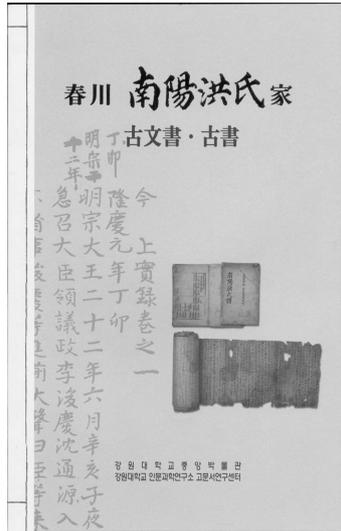
4) 崔英成, 「『石潭日記』의 筆法과 栗谷의 經世思想」, 『儒敎文化研究』 제13집, 儒敎文化研究所, 2008, p.49.

5) 崔英成, 위의 논문, p.65.

을 알 수 있다. 율곡의 「경연일기」는 史實의 採錄與否와 詳略 등은 매우 분명하며, ‘詳近略遠’의 원칙은 『사기』의 체제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율곡은 『사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史記』를 읽으면, 모름지기 治亂의 기틀과 현인 군자의 出處와 進退를 보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格物”⁶⁾이라는 정이천의 말을 빌어 제언하고 있는데서 이를 알 수 있다.⁷⁾



1. 「石潭野史, 江陵迎日鄭氏家江原大韓博物館



2. 「石潭日記, 春川南陽洪氏家江原大韓博物館

- 6) 李珣, 『栗谷全書』 1, 「聖學輯要」, p.444 下, “○讀史, 須見治亂之機, 賢人君子 出處進退, 便是格物.(程氏遺書○伊川先生語)”
- 7) 李珣, 『栗谷全書』 1, 「聖學輯要」, p.444 下, “程子曰. 凡讀史, 不徒要記事迹, 須要識其治亂安危興廢存亡之理. 且如讀高帝紀, 便須識得漢家四百年終始治亂 當如何, 是亦學也. ○又曰. 某每讀史, 到一半, 便掩卷思量, 料其成敗, 然後却 看有不合處, 又更精思, 其間多有幸而成, 不幸而敗. 今人只見成者, 便以爲是, 敗者, 便以爲非, 不知成者孰有不是, 敗者孰有是底. ○東萊呂氏曰. 大抵看史, 見治則以爲治, 見亂則以爲亂, 見一事則止知一事, 何取觀史? 須如身在其中, 見事之利害, 時之禍亂, 必掩卷自思, 使我遇此等事, 當如何處之, 如此觀史, 學 問亦可以進, 智識亦可以高, 方爲有益. ○許氏曰, 看史書, 當先看其人之大節. 然後看其細行, 善則效之, 惡則以爲戒焉, 所以爲吾躬行之益, 徒記其事而誦其 書, 非所謂學也. (右言讀史之法)”

이 유명한 春秋筆法은 바로 이런 사회에서 요청된 역사서술의 한 전형이지만, 『춘추』의 계승을 크게 의식한 사마천이 역사의 포폄 기능을 중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춘추』의 포폄이 주로 개인의 행동과 그 동기를 대상으로 가해졌고 특정한 문자의 사용을 통하여 표현된 것이라면, 『사기』의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건, 또는 한 시대 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었고, 그것이 전체적인 구성과 문장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특색이다.⁸⁾ 율곡의 인물평에 의한 포폄은 『사기』보다 지나쳐 상대 후손들에게 비판을 받는 면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이언적의 후손인 李韶久는 『辨正錄』에서 우리 조상(회재)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설명에 대해서는⁹⁾ 다기하고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일 율곡학과들은 판각을 앞두고 표제 선정문제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곤혹스러워 했다. 이는 당시 시대의 문제이자 역사성에 관한 문제이다.

II. 「石潭野史·日記」에서 「經筵日記」까지 刊行過程의 板本 및 標題 檢討

먼저 「경연일기」의 간행을 살피려면 율곡선생문집의 간행 차제를 살펴보는 것이 대략의 순서일 것이다. 율곡선생문집이 모두 몇 차례에 간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각 대학 도서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율곡의 문집과 書目 상에 나타나는 자료들을 수집해 본 결과, ① 1611(辛亥)년에 간행된 초간본. ② 년간미상의 여러 목판본들(부산대 소장본, 계명대 소장본,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도서번호 5750) 등. ③ 간년미상 활자본(서울대 규장각 소장본(4093). ④ 壬戌本(勉庵先生 古宅本), 外集(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일사, 古.819,52,Y57Y), 別集(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8) 李成珪, 『史記』, 서울대출판부, 1987, pp.78-79.

9) 李韶久, 『辨正錄』, 2001, p.376.

(5292), 부산대 소장본). ⑤ 1749(己巳)년에 『율곡전서』로 重刊된 활자본(서울대 규장각 소장본(5004)). ⑥ 1814(甲戌)년에 ‘⑤’의 본을 修正 復刻한 북각본(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간행 영인본). ⑦ 1918년에 간행된 석판본(계명대 소장본). ⑧ 1924년에 간행된 목판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산,古,3648-文62-306) 등이 확인되었다.¹⁰⁾

이를 중심으로 율곡선생의 저술 편찬은 『율곡선생문집』과 『율곡전서』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辛亥本은 광해군 3년에 간행되었는데 전해지지 않지만 그 간행경위는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율곡 생애동안의 기록으로 “仲兄인 璠씨는 우활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러나 선생의 어짙을 알고 마치 부형처럼 존경하였다. 그래서 선생이 매번 외출했다 돌아오면 ‘오늘은 무슨 述作이 있었느냐’고 반드시 물어서, 있으면 금방 손수 적었다. 그 때문에 선생의 시문이 후세에 전해진 것은 모두 그가 기록한 것이다.”¹¹⁾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보아 율곡의 생전 기록은 중형인 李璠이 틈틈이 기록했기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율곡선생문집』의 편찬은 “신해 39년(1611) 문집이 간행되었다. 선생이 작고한 후 문인 송애 朴汝龍(1541-1611) 등이 우계 성혼(1535-1598) 선생에게 품하여 문집을 편찬해 대략 형태를 갖추었다. 시집은 守菴 朴枝華(1513-1592)가 선집하였는데, 이 해에 이르러 비로소 해주에서 開板하였다.¹³⁾ 그 후에 續集·外集·別集도 세상에 유

10) 崔善慶, 「栗谷先生文集 板本研究」, 啓明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p.4.

11) 李珥, 『栗谷全書』 2, 「附錄」 6, p.420 上, “仲兄璠氏, 號稱迂闊, 然知先生之賢而敬服之, 殆如父兄然. 先生每出外而還, 必問今日有何述作, 有則輒手錄之. 故先生詩文之傳後者, 皆其所記也.” * 以下 『栗谷全書』는 『全書』라고 기록함.

12) 栗谷의 遺稿로는 仲兄인 李璠이 율곡 생전부터 수집해 온 文集草本 9冊과 율곡이 직접 수록한 詩稿手筆, 그리고 門人 李師善이 海州에서 受學할 때 기록했다고 하는 詩集逸編 등 상당한 분량의 草稿類가 존재하였다. 이는 본집의 「諸家記述雜錄」과 朴世采의 「栗谷續外集所輯書籍後錄」에 나타난다.

13) 이 「原集初刊本」은 현재 규장각(奎5750),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843)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序跋은 없다.

포되었는데, 이는 모두 文純公 朴世采(1631-1695)가 편찬한 것이다.”¹⁴⁾ 이로 보아 『율곡선생문집』은 율곡 선생 사후 28년 되던 해에 우계 성혼이 편집 고문으로 박여룡이 편집 책임자로 역할을 담당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朴世采는 평소 原集의 편찬 방식과 내용이 소략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1672년에 황해도 해주 石潭에 있는 栗谷의 舊邸로 가서 문집초본을 열람한 후 속집의 편찬을 계획하였다. 즉 초본 중 원집 간행시 누락된 글을 바탕으로 해주, 강릉, 파주의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저작을 모아서 그 중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속집으로 하고 나머지를 외집으로 편찬하였다. 1675년에 朴世采가 쓴 「跋栗谷先生續集」(南溪集 권68)은 그런 과정을 보여 준다. 『율곡전서』의 경우 이제(1680-1746)와 이진오가 편집책임자로 간행을 주도하였으며, 「년보」에는 “갑자 17년(영조20년, 1744) 전서가 이루어졌다. 선생의 시문이 원집 외에 續集·外集·別集이 있었는데, 文正公 李緯가 선생의 5대손 鎭五와 상의하여 대략 수정을 가해서 합편하고 그 명칭을 전서라 했다. 총합 38 권으로서 5년이 지난 후 활자로 간행했다. 또 습유 6권이 있다.”¹⁵⁾고 기록되어 있다.

「율곡선생전서수정법례」에 의하면, 율곡선생문집은 1611년(광해군 3년)에 율곡 선생의 시집·문집을 편집하여 목판으로 해주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것이 처음의 『율곡선생문집』으로 시집 1권, 문집 9권이었다. 1682년(숙종 8)에 朴世采가 빠진 것들을 모아 續集 4권, 別集 4권, 外集 2권을 편집·간행하였다. 그 후 1742년(영조 18년)에 율곡 선생의 시

14) 李珣, 『全書』 2, 「附錄」 2, p.331 上, “辛亥三十九年. 文集成. 先生沒, 門人朴汝龍等, 稟于牛溪先生, 編次文集略備. 詩集則爲朴守菴枝華所選, 至是年始成, 開板于海州. ○其後, 續集外集別集, 亦行于世, 皆文純公朴世采所編也.”

15) 李珣, 『全書』 2, 「附錄」 2, p.333 上-下, “甲子一百十七年(英宗大王二十年)全書成. 先生詩文, 原集外有續外別集, 文正公李緯與先生五代孫鎭五相議, 略加更定而合編, 名曰全書. 總爲三十八卷, 後五年, 以活字印若干本. 又有拾遺六卷.”

집·문집·속집·외집·별집을 한 데 합하고, 「성학집요」·「격몽요결」 등을 수록하여 38권으로 1749년(영조 25년)에 『율곡전서』라 이름을 붙여 간행하였다.¹⁶⁾ 여기에 1814년(순조 14년)에 다시 습유 6권과 부록의 속집이 부가되어 해주에서 중간되었다. 모두 2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율곡전서』의 간행 내용이 1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영조 22년에 “『율곡전서』를 복사해 들이라고 명하였으니, 유신 黃景源이 간행을 주청하였기 때문이었다.”¹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연일기」는 언제 어떤 형태로 『율곡전서』에 수록되어 간행되었을까? 아마도 「경연일기」는 「外集」의 발문이 쓰여진 1681년에 편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외집」은 「속집」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저작을 모아서 편찬했는데, 이 중에는 「經筵日記」가 포함되어 있다. 이덕무의 『靑莊館全書』에서는 “「석담일기」는 이이가 찬한 것으로 일명 「經筵日記」의 野史初本 6권이다. 택당 李植(1584-1627)이 찬한 것도 「석담일기」와 같으면서 자못 상세하고 완정하다.”¹⁸⁾고 한 것으로 보아 수초본 「석담일기」를 「경연일기」라고 표제한 것은 이식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표제 선정의 논의는 박세채가 송강 정철이라고 추론한 견해도 더 살펴볼 문제이다.¹⁹⁾ 왜냐하면 이덕무가 18C 인물이고, 이덕무가 알고 있는

16) 李珥, 『全書』 1, 「栗谷先生全書修正凡例」, p.1 上, “一. 先生集有詩集一卷, 文集九卷, 續集四卷外集四卷. 蓋詩集與文集刊出, 在於萬曆辛亥, 而詩集則朴守菴枝華諸公所選, 文集則牛溪先生所定, 而其分類編次, 多出於先生門人朴公汝龍諸人之手. 詮次鮮法, 又多缺而不備, 故玄石以是病之, 續集, 外集, 鱗次而成焉, 一主文集草本, (草本, 先生仲兄璠所錄寫, 凡九卷) 而且廣聚海陽·臨瀛·坡山, 及當時親舊子孫家所藏片言, 一作而編入之, 故或不無不分早晚, 博取不精之歎焉. 尤菴俱病於先後集, 以不能一番釐正爲恨云. 今適書院所在板本, 朽刊多缺, 早晚須將改刊. 故茲依尤菴遺意, 通詩文續外四集, 滾合爲一焉. 一. 詩文續外四集, 既合而爲一. 又依『二程全書』·『易傳』例, 并取先生所著如「聖學輯要」·「擊蒙要訣」諸書錄之, 改名之曰全書, 又次附錄於末.”

17) 『朝鮮王朝實錄』, 英祖 64권, 22년(1746년 丙寅/淸 乾隆 11년) 11월 9일(庚子) 4번째 기사, “○命弘文館, 取來『栗谷全書』, 繕寫以入, 因儒臣黃景源請刊行也.”

18)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54, 「盡業記」 1, “石潭日記, 李珥撰, 一名經筵日記, 野史初本, 六卷. 李植撰, 如石潭日記, 頗稱詳備.”

「경연일기」가 6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박세채가 당시 해주에서 본 「경연일기」는 3권이기에 이덕무가 본 「경연일기」 또한 필사된 이본일 가능성이 크다. 「경연일기」는 우계 성혼이 저자의 다른 어떤 글보다도 중요하게 평가하면서도 당시 忌諱해야 할 내용의 삭제 내지 소실과 판각 후 논란의 민감성과 곤혹스러움의禍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²⁰⁾

이때 우계 사후 박세채 역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집」에 섞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세채의 「外集跋」에는 일기의 초본 상태와 그 편찬방침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가지 異本을 가지고 校勘하여 定本을 확정하였는데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기의 내용에는 당시 인물들에 대한 褒貶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그 중에는 해당 인물의 후손의 청탁에 따라 塗抹한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외집」은 모두 8권 4책으로 권1은 賦와 저작 연도순으로 편찬된 詩이고, 권2는 批答, 疏, 啓辭, 書, 雜著, 권3은 序, 記, 箋, 歌謠, 靑詞, 祝文, 祭文, 墓碣銘, 墓誌銘이며, 권4부터 권8까지는 모두 「경연일기」이다. 현재 규장각(一襄古819. 52-Y57y),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만송문고(D1-A1080) 등에 畧本이 소장되

-
- 19) 崔英成, 『『石潭日記』의 筆法과 栗谷의 經世思想』, 『儒敎文化研究』 제13집, 儒敎文化研究所, 2008, p.63. 최영성 교수는, 박세채가 ‘경연일기’라는 표제가 송강 정철의 글씨인 듯하다고 추정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영성 교수는 만일 정철이 ‘경연일기’라 명명했다면 조선시대에 개인이 실록을 편찬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울곡의 일기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와 후환 등의 문제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 20) 李珥, 『全書』 2, 「附錄」 2, pp.316-317 下-上, “先生自出身以來, 常記朝政私議關於大體, 可爲[後法者, 釐成此編. 始於明廟乙丑, 止於當寧是歲, 皆手自楷寫爲三冊. 或曰, 壬午癸未兩年事, 亦有別錄, 而今亡矣. ○牛溪先生曰, 此編最多格言, 可以垂示百世, 見斯人之爲青天白日, 極爲關重, 非他文比也.”; 「附錄」 6, p.428 上. “與朴舜卿書曰, 日記最多格言, 可以垂之于後, 百世之下, 見斯人之爲青天白日, 極爲關係. 然登木則必至流傳, 恐致大禍. 只欲分寫數十本, 藏于諸友之家, 待數十年後, 刊于精舍.”

어 있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율곡전서』에 간행된 「石潭野史·日記」에서 「經筵日記」까지 刊行過程의 板本 및 標題 檢討 결과 편찬자 및 사상사적 연맥 계보는 이번(李璠)-우계 성혼(1535-1598)-수암 박지화(1513-1592)-송애 박여룡(1541-1611)-사계 김장생(1548-1656)-백사 이항복(1556-1618)-월사 이정귀(1564-1635)-신독재 김집(1574-1656)-택당 이식(1584-1627)-동춘당 송준길(1606-1672)-우암 송시열(1607-1689)-남계 박세채(1631-1695)-수암 권상하(1641-1721)-도암 이재(1680-1746)-담와 홍계희(1703-1771)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연일기」의 간행과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간행 이전에 우계-사계 등은 「석담일기」 소장과 내용에 관한 곤혹스러움을 내비치기도 한다. 즉 「경연일기」의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정치·사상문제나 인물비판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²¹⁾

홍계희의 『栗谷全書』 「拾遺跋」에 의하면 “우리 스승 도암 이선생이 비로소 전서를 편찬하였는데, 한결같이 世道와 斯文에 관련이 있는 것만 취하였다. 틈이 있거나 산만한 글들은 수록하지 않았으니 대략 원집에서 열 중의 한 두가지를 깎아 없애고 속집과 외집에서 열 중의 한 두가지를 남겨 두었다. 또한 『이정전서』의 예를 따랐으며 「성학집요」, 「격몽요결」, 「경연일기」 등을 편입시켰으며 어록과 부록을 이었다.”²²⁾ 남계 박세채가 숙종 8년(1682년)에 6권 3책으로 된 『율곡선생별집』과 8권 4책

21) 成渾, (國譯) 『牛溪集』, 「牛溪年譜補遺」 제1권, 「答問」. 民推, 2002, p.85 下, “牛山曰, 栗谷先生有日記, 牛溪先生研朱點竄, 雖子弟門生, 不許窺闚. 嘗曰, 此書實東方所未有之書也. 栗翁他文字, 雖不傳, 唯此書得傳, 使後世知吾東方有如此人物有如此道學, 則更無憾矣. 又曰, 辛卯余自門下辭歸. 先生以石潭日記一帙與之曰, 近觀時事, 不久大亂將生, 圻輔被燹, 必倍外服, 爾須將此冊, 幸圖傳後爲可, 余受而歸藏. 乙丑年間, 月沙主纂史之任, 余以此書示之, 沙溪以早出爲非云.”

22) 洪啓禧, 『全書』, 「拾遺跋」, “吾師陶菴李先生, 始編全書一取其有關於世道斯文者. 而閒漫文字并不錄. 大約於原集十刪一二, 於續外集十存一二. 又依程書之例, 并編聖學輯要擊蒙要訣經筵日記, 繼之以語錄附錄.”

으로 된 『율곡선생속집』, 『율곡선생외집』을 간행하였다. 그 후 박세채 뒤를 이어 도암 이재가 『이정전서』의 예를 따라 전서 발간을 위한 편집을 한 것이다. 이 때 「경연일기」의 편집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발간된 것은 홍계희에 이르러서이다. 홍계희는 스승인 이재의 취지를 이어 받아 발간 의도를 밝히고 있다.²³⁾ 이것은 1774년(英祖 20년)에 이재가 既刊本을 대량 刪削하고, 이전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던 「성학집요」, 「격몽요결」, 「경연일기」, 「어록」, 「부록」을 편집시켜 전서를 편성하였으며, 5년 뒤인 1749년(英祖 25년)에 홍계희와 그의 벗들이 활자를 주조하여 몇 본을 간행한 뒤 다시 이재가 刪削한 것 가운데서 율곡의 詩文이 분명한 것을 가려 뽑아서 拾遺 6권을 편집하여 1749년 가을에 전서와 습유로 합본 印出한 것이 己巳本임을 알 수 있다.²⁴⁾

또한 1581년 율곡 선생의 나이 46세에 “「경연일기」가 이루어졌다. 선생은 출신한 후로부터 항상 조정에 대한 私議가 대체에 관계되어 後法이 될 만한 것을 기록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明廟 을축년(명종 20년, 1565년)에서부터 시작하여 당저(當寧; 선조를 말함)의 금년까지 모두 손수 楷書로 써서 3책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임오년·계미년 양년의 일에 대해서도 또한 별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우계 선생이 말하기를, ‘이 편에는 격언이 가장 많아 백세에 전하여 보여줄 만한 것으로서, 이 사람이 청천백일이 됨을 볼 수 있어 극히 관계가 중요하여 다른 글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²⁵⁾

23) 洪啓禧, 『全書』, 「拾遺跋」, “後五年啓禧與士友謀鑄活字, 印若干本訖. 士友有語啓禧者曰, 陶翁去取固至矣. 然後學於先生慕仰無極. 雖片言雙字之出於殘編斷簡者, 亦皆藏弃而愛重之. 先生詩文之既經刊行者, 有傳有不傳. 則凡讀是書者, 必不無想像興嘆, 欲見而未之得者. 且續外集, 多有他作之混入, 而其或來歷之不明者, 間有之陶翁之有意, 存刪蓋出於是.”

24) 崔善慶, 앞의 논문, p.13.

25) 李珥, 『全書』 2, 「附錄」 2, p.316 下-上, “「經筵日記」成. 先生自出身以來, 常記朝政私議關於大體, 可爲後法者, 釐成此編. 始於明廟乙丑, 止於當寧是歲,

『조선왕조실록』에도 「경연일기」의 판본존재 여부가 나타나는데 ‘判中樞府事 文純公 權尙夏 卒記’에 송시열이 초산에서 화를 입었을 때 世道를 권상하에게 부탁하고, 이어서 옷과 책을 그에게 물려주었는데, 옷은 바로 주자가 지은 野服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었고, 책은 바로 이이가 손수 쓴 「경연일기」 草本으로, 김장생이 송시열에게 전해 주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²⁶⁾ 송시열은 서한을 통하여 「석담일기」의 원본은 신독재 김집(1574-1656)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김장생(1548-1656)과 김집이 「석담일기」를 비밀리 보관하여 그 유통을 막고자 하였던 일을 들었고 「석담일기」가 등사되어 세상에 널리 퍼진 것은 신독재 문하의 동춘당이 이를 필사하여 전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인조 15년(1637)과 인조 16년의 사이에 송준길과 여러 명의 선비에 의해서 김집이 보관하고 있던 「석담일기」가 등사되었고, 이를 당시에 배천군수를 지낸 이이의 후손 李景閔이 다시 전사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²⁷⁾ 이로 보아 간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곤혹스럽고 민감한 문제들이 파생됨에 따라 율곡선생전서 수정본의 간행 경위 중 일기에 관련된 범례를 “筍啓 전문이 일기에 실려 있으며, 문집 중에 중첩되는 쓸데없는 문자나 어구를 삭제하고, 사간원이나 사헌부의 啓辭도, 관계없는 것은 또한 삭제하였다.”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皆手自楷寫爲三冊. 或曰, 壬午癸未兩年事, 亦有別錄, 而今亡矣. ○牛溪先生曰, 此編最多格言, 可以垂示百世, 見斯人之爲青天白日, 極爲關重, 非他文比也.”

- 26) 『朝鮮王朝實錄』, 景宗 수정 2권, 1년(1721신축/정康熙 60년) 9월 2일(庚寅) 1번째 기사, “○庚寅判中樞府事文純公權尙夏卒. 尙夏, 字致道, 堅確重厚, 攻學甚勤篤. 尙夏師事宋時烈, 時烈甚重之, 題其所居之室曰寒水齋. 時烈被禍於楚山, 以世道托尙夏, 仍以衣書付之, 衣卽倣朱子所製野服而製之者, 書卽李珣手書「經筵日記」草本, 金長生傳之時烈者也.”
- 27) 高旻廷, 앞의 논문, p.75. 再引用. (宋時烈, 『宋子大全』 卷67, 「書」, ‘答朴和叔’, p.297 上, “其書之出自慎齋門下, 當在丁丑戊寅之間矣. 此時李公景閔守沃川, 自沃川遞罷後爲白川, 則其所置贍本, 正是出於春兄轉寫者耳.”)
- 28) 李珣, 『全書』 1, p.1 下, “筍啓全文之載於日記, 而疊出於集中者, 亦皆刪去. 院

Ⅲ. 板本の 思想的 推移

일기의 범주에 대해 공적 일기와 사적 일기로 나누어 보자. 公的 日記는 주로 왕의 재위 기간 동안의 사실, 왕실의 儀禮나 각종 행사, 京外 各官廳의 공무들을 逐日 또는 부정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오늘날의 업무일지적 성격이 짙다. 그런데 출근부, 공문수발부, 지출장부 등에 일기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다. 私的 日記는 주로 공적인 사실(대개 政事), 일상생활의 신변잡사, 국내의 기행, 전란이나 사건, 문학과 학문, 개인의 행적 등을 축일 또는 부정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적 일기의 경우, 일기가 아닌 기록물-야사, 개인의 행적, 학술자료- 등을 부정기적(주로 년도별 또는 월별, 어떤 달이나 어떤 날 등등)·회상식으로 요약·기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²⁹⁾ 율곡의 「경연일기」가 과연 공과 사의 영역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포괄적인지는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연일기」와 「석담일기」·「석담유사」의 표제는 각기 다르면서 동의어인 명칭에 관해 살펴보자. 「석담일기」 및 「경연일기」의 간사본은 다음과 같다.³⁰⁾

석담이란 용어는 율곡 선생이 만년인 1571년 42세(丁丑年) 되던 해인 1월에 황해도 해주 석담으로 돌아와 비로소 집을 짓고 여러 형제에게 함께 살기를 청한다.³¹⁾ 율곡이 만년까지 석담에 있으면서 「일기」를 저술하였기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이제 「석담일기」 간사본을 통해서 명칭의 연원부터 살펴보면, 현재 논자는 다양한 형태로 산재된 간사본 중 인지되는 본만을 가지고 논지를 펴려고 한다. 현재 확

府啓辭, 無甚關係者, 亦從刪定焉.”

29) 宋宰鏞, 『『眉巖日記』研究』, 檀國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p.14.

30) 高旻廷, 앞의 논문, p.69.

31) 李珥, 『全書』 2, 「附錄」 2, p.308 下, “丁丑五年.(先生四十二歲) ◎正月. 還石潭, 會宗族作同居戒辭, 行司馬氏朔望儀.”

인된 「석담일기」는 5종으로 춘천 남양홍씨가(춘천본)는 2책 필사본³²⁾이고, 강릉 영일정씨가(강릉본)는 1책 필사본³³⁾이다. 각2책 모두 자료가 끝나고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에 기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춘천 남양홍씨 문중에 전하는 이 2책의 필사본은 「석담일기」의 내용과 같으나 필사의 목적이나 경위, 또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필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은 춘천 남양홍씨 문중에 전하는 필사본은 『율곡전서』나 『대동야승』에 실려 있는 것과는 수록 부분과 체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이 춘천본은 다른 본과 달리 1567년(명종 22년) 6월말 국왕이 승하하기 이전의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필사본 표제는 「석담일기」라고 되어 있으나 안쪽의 제목은 ‘今上實錄卷之一’이라고 붙여져 있다. 『율곡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경연일기」의 ‘隆慶元年丁卯’ 부분에 “원본에는 이 위에 今上實錄卷之一 일곱 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춘천본은 원본을 필사한 것으로 보이거나 당초부터 무슨 이유에서 이 개인 기록에 ‘今上實錄’이라는 표제가 붙여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다소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여러 방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³⁴⁾ 강릉본인 「석담야사」는 필사자와 필사연대는 알 수 없고, 각각의 일에 대하여 隔字하고 ‘謹按’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아울러 기록하였다.³⁵⁾

이제 「경연일기」가 「석담일기」로 병칭되어 불려왔듯이 그것이 공적 일기인지 사적 일기인지 아니면 正史인지 野史인지의 문제도 시대상황과 더불어 살펴볼 문제이다. 이를테면 박세채가 우암 송시열에게 「석담

32) 江原大 人文科學研究所 古文書研究센터, 『春川南陽洪氏家 古文書·古書』, 江原大 中央博物館, 2005.

33) 江原大 江原文化研究所, 『鄭義鎭先生家 寄贈 古書·古文書』, 江原大 中央博物館, 2008.

34) 江原大 人文科學研究所 古文書研究센터, 앞의 책, pp.67-68.

35) 江原大 江原文化研究所, 앞의 책, pp.227-228.

야사」의 초본의 외면에는 「경연일기」라고 표제하고, 내면에는 ‘금상실록’이라고 하는데, 율곡 자신의 언행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옛 성현의 고증할 만한 기준이 없음을 문의하고 있다.³⁶⁾ 또한 우암 송시열(1607-1689)이 박세채에게 보낸 서신에서 「석담일기」는 國史(正史)와 野史 사이에 있지만 일시적인 시비판단은 후세에 본받을만한 경계가 되는 교훈이 되어 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³⁷⁾ 우암은 앞서의 답신에서 「석담일기」의 正·私(國史·野史)에 관한 곤혹스러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³⁸⁾ 이 서신은 1681년(숙종7년) 12월 14일에 우암이 박세채에게 보낸 답신의 일부이다. 이 내용인즉 定本 1부가 있었는데, 金長生의 집에 소장하여 두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찍이 언급하는 일조차 없었다. 金集에 이르러서는 더욱 엄하게 소장하였는데, 宋浚吉이 처음 빌려 보기를 청하고, 빨리 젊은 사람들과 더불어 부지런히 등사하니, 김집이 듣고 크게 놀라 급히 거두어다 수장하였으나 이후에 그 책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보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 동일한 내용을 이궁익도 『연려실기술』(권 18)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36) 朴世采, 『南溪集』 卷3, 「問答論事」, 「答宋尤齋別 九月十日」, p.292 下-上, “栗老石潭野史, 本草外面稱以經筵日記, 內面稱以今上實錄. 又其詳載自己言行者, 事體殊異, 未知此於古聖賢所處之義, 果何準的耶. 伏乞批示, 以解昏蒙千萬.”

37) 宋時烈, 『宋子大全』 卷67, 「書」, 「答朴和叔 壬戌正月二十六日」, p.297 上, “石潭日記, 只在國史野史之間, 要以定一時是非, 爲後世之鑑戒, 其爲知罪之意深矣.”

38) 宋時烈, 『宋子大全』 卷67, 「書」, 「與朴和叔 辛酉十二月十四日」, p.296 上, “石潭日記, 極有難言者, 故久未奉報, 亦甚惶恐. 蓋此書, 只有正本一件, 藏在文元先生家, 而非徒不以示人, 亦未嘗語及. 蓋此書非野史, 而實有史法故也. 至於慎老, 藏之尤密矣. 春兄始請見, 則拒之甚峻, 至於請之不已, 則始乃暫借而戒之曰, 一閱之後, 亟爲收還, 春兄不能承奉, 亟與少輩贖出一件, 慎老聞而大驚, 使之急急收藏其贖本, 切勿宣洩矣. 春兄又不能然, 以致今日無處不到, 無人不見, 此爲可恨. 然又至於刊布, 則尤似不便何也? 朱子於魏良齋墓文, 以其言及近習, 故不敢直書其事者, 慮有泉壤之禍也. 今語錄所書, 不止近習而已, 則其見書者之子孫, 其憾怒何如也. 第此書終不可泯, 則校讎諸本, 爲一善本而藏之名山, 此一事也, 未知如何?”

「석담일기」는 국사와 야사의 기준 근거가 없었고, 옛날에 고증할만한 전거도 없었기 때문에³⁹⁾ 간행이 늦어질 수 있었고,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또한 인물평으로 인해 자손에게 일어날 환란을 예견하고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암은 이에 앞서 율곡의 전승 관계를 피력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인용문은 우암이 83세 때 후일의 일을 문인 권상하와 이별하며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다.⁴⁰⁾ 「석담일기」 필사본이 학자들 사이에 전파된 뒤에도 율곡학과에서는 여전히 공개를 꺼렸다. 단지禍를 부르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비장되어 온 「석담일기」 수사본은 율곡이 생전에 공개하지 않은 비밀스런 것으로서 학과의 嫡傳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불가에서 衣鉢을 전수하듯이 대대로 嫡嫡相承하였으니, 김장생→김집으로 전해진 「석담일기」 수사본은 송시열에게 전해졌고 이후 수암 권상하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이다.⁴¹⁾

또한 「석담일기」를 살펴보면 체제와 내용상 실록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데 특히 『명종실록』이나 『선조수정실록』과 비교해보면 더 많은 유

39) 朴世采, 『南溪集』 卷6, 「問答論事」, 「答宋敘九別紙 辛酉十二月七日」, p.345 上, “栗谷續外集八冊方開板湖營, 而石潭日記亦依韓文順宗實錄例校附外集矣. 唯其以野史而全用正史法及多載自己言行等事, 於古無可援證者, 未知其衷, 曾已奉告於函丈前, 尙未蒙教, 此所未曉者一也.”

40) 宋時烈, 『宋子大全』 「附錄」 卷19, 「記述雜錄」, 「李檀」, p.583 上, “先生早從文元公學. 文元公既卒, 先生以所事文元公者, 事文敬公慎獨齋先生, 盡得其所藏, 文成公所著聖學輯要, 石潭日記等書及其遺稿, 未及刊行, 他人所未觀者, 皆有所傳授. 故先生學問規模, 言論風旨, 粹然一出於正, 而卒得石潭之嫡傳.”; 「附錄」 卷11, 「年譜」, p.439 上, “栗谷先生手蹟(如石潭日記之類頗多.)又有沙溪先生與白沙李公, 刪定栗谷碑文時往復文字及行狀草本. 慎齋袁粹深藏, 至末年傳授於我矣. 欲託與致道, 自我言之則如此說及. 實有未安者, 然致道其勉守之. 栗翁子孫, 設欲持去, 此異於他物, 不可與也. 吾初欲與朴和叔共守之, 今和叔如彼, 奈何. 他日疇孫生還, 則與之共守亦不妨也.”

41) 崔英成, 「『石潭日記』의 筆法과 栗谷의 經世思想」, 『儒敎文化研究』 제13집, 儒敎文化研究所, 2008, pp.59-60.

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기사를 년, 월, 일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편년체 방식을 채택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정확한 연도를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계절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고 선왕의 임종과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도 일치한다.⁴²⁾ 또한 율곡의 「석담일기」는 편찬에 참여했던 『명종실록』의 체제를 모방하여 서술된 사찬 사서이며, 『선조수정실록』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최영성은 「석담일기」의 체제를 율곡의 역사의식, 경세관, 우국애민의 정신 등을 살피는데 중요하지만, 역시 ‘경세서’에 의미를 두어야 하며, 율곡 자신의 경세론, 경세사상을 구체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 입체적으로 서술하여 후세에 알리는데 저술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율곡은 실제로 자신의 학문관, 시국관, 경세관 등을 당시의 구체적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응용,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제안한다.⁴³⁾ 이러한 공통된 점은 1592년 임진왜란·정유재란 10년 전쟁 동안 변화로 『선조실록』이 훼손되어 『석담일기』 등을 많이 참조한 기록임을 반증할 수 있다. 즉, 『조선왕조실록』 1577년(선조10년) 11월28일 기사를 보면 선조가 備忘記로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朝報를 古史처럼 인출한 일에 대해 추문을 명하고 있다. 선조는 끝까지 추문하여 죄를 다스려서 예를 만드는 조정의 습관에 대해 경들은 심히 미워하고 통렬히 근절시켜서 時俗을 순후하게 만들라고 명하고 있다.⁴⁴⁾ 이 내용에 대해 몇몇 전공자들이 『선조수정실록』은 율곡의 『경연일기』를 모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석담일기』와 『선조수정실록』의 같고 다름은 다른 논고에서 자세하게 상고할 문제이다.

42) 高旻廷, 앞의 논문, p.79.

43) 崔英成, 「『石潭日記』의 歷史意識과 敘述方法」,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 栗谷學會, 2009, p.32. 참조.

44) 『宣祖實錄』 11卷, 10年(1577년 정축/명 萬曆 5년) 11월 28일(경진) 3번째 기사.

IV. 思想的 推移에 관한 檢討 및 結論

‘경연’의 의미는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해 신하들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 經籍·史書 등을 강론하던 일을 의미한다. 강론이 끝난 뒤에는 古·今의 道義·정치와 특히 당면문제를 토론했다. 경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실시하며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했다.⁴⁵⁾ 조선시대에는 유교경전의 강론을 관장하던 경연청이 있었다. 1420년(세종 2년)에 창설하여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로 하여금 임금에게 경서와 치국의 도리를 강론하게 하였다.⁴⁶⁾ 이제 「경연일기」, 즉 「석담일기」의 주요 내용을 특징적으로 정리해 보자.

첫째, 「석담일기」 및 「석담야사」와 「경연일기」로 불리는 명칭의 문제이다. 「석담일기」의 명칭은 『율곡전서』에 「경연일기」가 간행되기 전까지 불리워졌고, 간행 후에도 필사본 등에서 이의 없이 불리고 있다. 高旻廷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석담일기」를 ‘석담야사’라고 칭한 것은 박세채가 외집을 간행할 당시에 이미 통용되었던 것 같다. 숙종 7년(1681) 9월에 박세채가 송시열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박세채는 「석담일기」를 ‘석담야사’로 표현하고 있으나 같은 해 12월에 송서구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석담일기’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김장생(1548-1631)은

45) 李珥 著·尹絲淳 譯, 『石潭日記』, 三省美術文化財團, 1983, p.39.

46) 儒教辭典編纂委員會, 『儒教大事典』, 2004, p.61, “1894년(고종 31년) 홍문관·예문관을 합치고, 1895년에 경연원으로 개칭하였다.”

47) 朴世采, 『南溪集』 卷3, 「問答論事」, 「答宋尤齋 九月十日」, p.292 下-上, “栗老石潭野史, 本草外面稱以經筵日記, 內面稱以今上實錄. 又其詳載自己言行者, 事體殊異, 未知此於古聖賢所處之義, 果何準的耶. 伏乞批示, 以解昏蒙千萬.”; 卷6, 「問答論事」, 「答宋毅九別紙 辛酉十二月七日」, p.345 上, “栗谷續外集八冊方開板湖營. 而石潭日記亦依韓文順宗實錄例校附外集矣. 唯其以野史而全用正史法及多載自己言行等事. 於古無可援證者, 未知其衷. 曾已奉告於函丈前, 尙未蒙教. 此所未曉者一也.”

辛用錫과李玉汝에게 보낸 서한에 ‘석담일기’라고 지칭하였고 송시열도 박세채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崔愼(1642-1708)은 「華陽見聞錄」에서 ‘석담야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安邦俊(1573-1654)의 연보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⁴⁸⁾ 그 외에도 이이의 제자들 사이에서 ‘석담일기’ 또는 ‘석담야사’라는 표현이 시기의 선후와 상관없이 여러 차례 쓰였음이 확인된다.⁴⁹⁾

둘째, 「경연일기」의 표제와 진위문제이다. 이 진위문제는 명칭의 관계를 「경연일기」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5건이 제기되며, 「석담일기」에 대해서는 2건이 출전된다.⁵⁰⁾ 「석담일기」 명칭의 출전은 2건이

48) 金長生, 『沙溪遺稿』 卷3, 「書」, 「與辛用錫, 李玉汝」, p.39 下, “謹按, 退溪與李楨書, 詳見文集, 又按石潭日記, 浚慶疾病, 上筭論朝臣有朋黨之私, 請破之. 上驚問大臣而亦不窮問.”; 宋時烈, 『宋子大全』 卷67, 「書」, 「答朴和叔 壬戌正月二十六日」, p.297 上, “石潭日記, 只在國史野史之間, 要以定一時之是非, 爲後世之鑑戒, 其爲知罪之意深矣.”; 崔愼, 『鶴庵集』 卷5, 「華陽見聞錄」, 「追錄」, p.291 下, “至於石潭野史; 筵中日記, 則極其不可出世之文也. 沙溪老先生暨慎獨齋先生. 祕而不出. 吾與同春再三懇請而見之. 仍得贍出. 今日之行於世者. 以此也. 孰謂今日刊行於世乎. 諸儒之有遠慮於栗谷先生者. 若不破其板本. 則吾恐必貽泉壤之禍於栗谷也.”; 安邦俊, 『隱峯全書』 「附錄」 上, 「隱峯先生年譜」, p.501 上, “牛溪先生所付石潭野史, 亦不失焉.”

49) 高旻廷, 앞의 논문, p.72. 再引用.

50) ① 『朝鮮王朝實錄』, 景修 2卷, 1年(1721 辛丑/清 康熙 60年) 9月2日(庚寅) 1번째기사, “時烈被禍於楚山, 以世道托尙夏, 仍以衣書付之, 衣卽做朱子所製野服而製之者, 書卽李珣手書「經筵日記」草本, 金長生傳之時烈者也.”

② 『朝鮮王朝實錄』, 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清 雍正 2年) 9月25日(乙丑) 3번째기사, “昔宋紹興初, 壽皇在殯, 朱子請增添講日. 與我宣廟, 宅恤卒哭前, 連御講筵事, 載先正臣 李珣「經筵日記」.”

③ 『朝鮮王朝實錄』, 英祖 58卷, 19年(1743 癸亥/清 乾隆 8年) 12月 20日(己巳) 6번째기사, “程子論濮王典禮曰, ‘雖當專意大統, 豈可盡絕私恩?’ 我朝先正臣李珣, 亦以弘文館之請止宣廟朝親祀大院君之廟爲非, 其說俱載「經筵日記」.”

④ 『朝鮮王朝實錄』, 英祖 120卷, 49年(1773 癸巳/清 乾隆 38年) 3月 14日(癸卯) 4번째기사, “○贈故正郎黃大受職右議政, 遺承旨, 致祭其墓, 又官其孫. 大受於宣廟入官時, 以注書善處變者也. 上問其事蹟, 判府事金尙喆曰: ‘詳在先正臣 李珣「經筵日記」矣.’ 上取考曰: ‘宰相須用讀書人’.”

다.⁵¹⁾ 『한국문집총간』에 ‘경연일기’라는 명칭은 모두 98건으로 이 중에서 율곡의 「경연일기」를 지칭하는 것은 61건, ‘석담일기’는 52건, ‘석담야사’는 7건, ‘석담유사’의 경우 14건이 제시되고 있다. 이로 볼 때 「경연일기」와 「석담일기」, 「석담야사」, 「석담유사」의 명칭은 동일한 함의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각 필사본의 내용도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권수와 내용의 同異 문제이다. 「경연일기」 1권에는 1565년(명종 20년)-1571(선조 4년)까지 7년간, 2권에는 1572(선조 5년)-1576(선조 9년)까지 5년간, 3권에는 1577(선조 10년)-1581(선조 14년)까지 5년간의 경연과 강론 내용을 각각 서술하고 있다. 「석담일기」 및 「석담야사」 등의 필사본과 「경연일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표적 야담집인 『大東野乘』에는 『율곡전서』 「경연일기」의 명종비 인순황후의 외삼촌인 李樛과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곤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담일기」 및 「석담유사」, 「석담야사」 등의 필사본은 「경연일기」와 비교를 통한 토론과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경연일기」의 판본 및 표제에 관한 서지적 검토와 더불어 사상적 추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경연일기」의 사료적 가치 및 수록 내용을 분류하였다. 또한 「경연일기」는 「석담일기」와 동일한 표제를 지니고 있으며, 「경연일기」는 『율곡전서』 판본의 표제이지만 「석담일기」 또는 「석담야사」는 정식 판본이 아니라 여러 식자들에게 필사되어 읽혔음을 살펴보았다. 논자는 이러한 간행본과 간사본의 체제에 의문을 품고, 「경연일기」와 「석담유사」의 명칭 및 특징을 판본의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경연일기」가 언제 어떤 형태로 『율곡전서』에

51) ① 『朝鮮王朝實錄』, 肅宗 15卷, 10年(1684 甲子/清 康熙) 23年 8月 21日(甲寅) 1번째기사, “此事不記何時事, 然文簡先生, 嘗於「石潭日記」, 手抹休菴一款, 而字字猶鑿鑿分明, 此亦有心而可疑者耶?”
 ② 『朝鮮王朝實錄』, 肅補 19卷, 14年(1688 戊辰/清 康熙) 27年 11月 25日(甲午) 1번째기사, “『戊辰錄』, 旣自僭擬於先正臣李珣所撰「石潭日記」, 則柳家田畚之買賣, 有何關係世道. 而記其斗星擅賣之不當, 又以此反復貽書於推官, 若是其媿媿不忘, 何也?”

수록되어 간행되었는지의 편찬자의 사상사 연맥 계보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연일기」와 「석담일기」 및 「석담유사」, 「석담야사」의 판본 및 표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율곡전서』 간행본의 판본문제와 「석담일기」 등의 필사본 체제를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및 『한국문집총간』 등의 「경연일기」와 「석담일기」 수록의 해석 문제도 다소간 살필 수 있었다.

율곡의 「석담일기」는 『율곡전서』 중에 秘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율곡 자신의 학문과 사상, 나아가 정치적 이념과 경세에 대한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서술한 경세서라고 할 수 있다. 또 율곡 자신이 ‘금상실록’이라고 명명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스스로 사관의 위치에서 당세의 역사를 공정하게 以實直書하여 ‘直書’, ‘直筆’의 전통을 세우고, 후세에 鑑戒를 드리우려 했던 心法이 담긴 수양서이기도 하다. 율곡은 이 일기가 공문을 얻기 전까지는 비밀에 부칠 것을 부촉하였다.⁵²⁾ 이러한 문제를 후일 송시열은 서한을 통하여 확인했듯이 「석담일기」의 원본은 신독재 김집(1574-1656)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김장생(1548-1656)과 김집이 「석담일기」를 비밀리 보관하여 그 유통을 막고자 하였던 일을 들었고 「석담일기」가 등사되어 세상에 널리 퍼진 것은 신독재 문하의 동춘당이 이를 필사하여 전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인조 15년(1637)과 인조 16년의 사이에 송준길과 여러 명의 선비에 의해서 김집이 보관하고 있던 「석담일기」가 등사되었고, 이를 당시에 배천군수를 지낸 이이의 후손 李景閔이 다시 전사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논자는 「경연일기」의 체제와 사상적 추이를 司馬遷의 『史記』와 견주어 보았다. 논자가 보기에 「석담일기」는 『사기』처럼 일목요연한 연표나 서문, 발문, 범례가 없지만 기탄없는 인물평과 褒貶 등은 『사기』와 체제

52) 崔英成, 「『石潭日記』의 筆法과 栗谷의 經世思想」, 『儒敎文化研究』 제13집, 儒敎文化研究所, 2008, p.86.

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율곡의 「경연일기」는 史實의 採錄 與否와 詳略 등은 매우 분명하며, ‘詳近略遠’의 원칙은 『사기』의 체제를 배치했다고 볼 수 있다. 율곡의 인물평에 의한 포폄은 『사기』보다 지나쳐 이언적 등의 후손들에게 비판을 받는 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논의는 다기하고 정치적인 논란일 수 있기에 후일 율곡학파들은 표제 선정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당시 시대의 문제이자 사상의 추이에 관한 전개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연일기」가 「석담일기」 등으로 병칭되어 불려왔듯이 그것이 공적 일기인지 사적 일기인지 아니면 正史인지 野史인지의 문제도 시대 상황과 더불어 살펴보았다. 또한 이 논의는 공적·사적 문제와 정사·야사의 경계와 인물평 및 비판론과 관련하여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參考 文獻>

『朝鮮王朝實錄』

江原大 江原文化研究所, 『鄭義鎭先生家 寄贈 古書·古文書』, 江原大 中央博物館, 2008.

江原大 人文科學研究所 古文書研究센터, 『春川南陽洪氏家 古文書·古書』, 江原大 中央博物館, 2005.

民族文化推進委, 『大東野乘』 4, 1971.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100-157, 1992.

(社)栗谷學會, 『栗谷學研究叢書(資料編)』(全10卷), 원영출판사, 2007.

(社)栗谷學會, 『栗谷學研究叢書(論文編)』(全10卷), 원영출판사, 2007.

(社)栗谷學會, 『退溪學派의 栗谷批判』(全3卷), 원영출판사, 2008.

成大大東同文化研究院, 『栗谷全書』 1·2, 1992.

李韶久, 『辨正錄』, 2001.

李珥 著·尹絲淳 譯, 『石潭日記』, 三省美術文化財團, 1983.

韓國學文獻研究所編, 『(栗谷門徒)石潭及門諸賢集』, 亞細亞文化史, 1982.

高旻廷, 「李珥의 『石潭日記』에 대한 書誌學的 檢討」, 『全北史學』 32호, 전북 사학회, 2008.

김우형, 「『石潭日記』에 나타난 栗谷의 災異觀」,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栗谷學會, 2009.

남달우, 「宣祖 初期(1567-1581)의 政局과 士林; 李珥의 『經筵日記』를 中心으로」, 『인하사학』 1, 인하역사학회, 1993.

서복관 지음, 고재욱·김철운·유성선 옮김, 『中國經學史의 基礎』, 江原大出版部, 2007.

宋宰鏞, 「『眉巖日記』 研究」, 檀國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신하령, 「『石潭日記』를 통해 본 栗谷의 當代 人物評」,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栗谷學會, 2009.

儒教辭典編纂委員會, 『儒教大事典』, 2004.

李成珪, 『史記』, 서울대출판부, 1987.

- 拙稿, 『栗谷 李珣의 修養工夫論』, 國學資料院, 2002.
- , 『栗谷 哲學의 理解』, 江原大出版部, 2008.
- , 「『經筵日記』의 板本 및 標題에 관한 書誌的 檢討」,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栗谷學會, 2009.
- , 「『經筵日記』板本の 思想的 推移 研究」, 『冬季學術大會 發表資料集』, 韓國漢文古典學會, 2011. 1. 18.
- 崔善慶, 「栗谷先生文集 板本研究」, 啓明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 崔英成, 「『石潭日記』의 筆法과 栗谷의 經世思想」, 『儒教文化研究』 제13집, 儒教文化研究所, 2008.
- , 「『石潭日記』의 歷史意識과 敘述方法」, 『栗谷思想研究』 제18집, (社)栗谷學會, 2009.
- 황의동, 『栗谷 思想의 體系的 理解』 2, 서광사, 1998.
- 황준연, 『李栗谷, 그 삶의 모습』, 서울대출판부, 2000.

Abstract

*A study on ideological tendency of publishing process from
「Seokdam unofficial history and Diary」 to 「Kyungyeon Diary」
/ You Sung 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deological tendency of publishing process from 「Seokdam unofficial history and Diary」 to 「Kyungyeon Diary」. Confucianism scholars in Chosun period recorded public and private events specifically and sincerely in diary style which they contemplated on in a daily life. Among the records, manuscript and original copy of records written by Yulgok Yi I were read attentively. Kyungyeon Diary was completed in his age 46. Kyungyeon Diary is a record in diary style of chronological form which includes major events and comments on figures in detail.

Besides Kyungyeon Diary, this record has been also named as 「Seokdam Diary」, 「Seokdam unofficial history」, and 「Seokdam Reminiscence」. Kyungyeon Diary is a historical material through which social thoughts of Yulgok can be found - Yulgok applied his experiences made by direct participation in political affairs to social revolution.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composed of review of 『collection』, woodblock printed-book, and title, ideological tendency of woodblock printed-book, review on ideological tendency. This paper investigated an issue related to the names such as 「Seokdam Diary」, 「Seokdam unofficial history」, and 「Kyungyeon Diary」. In addition, the title of 「Kyungyeon Diary」 and whether 「Kyungyeon Diary」 is authentic or not were reviewed.

And there are same number of volumes and same contents as a problem requiring further study. 「Kyungyeon Diary」 and 「Seokdam Diary」 has a

* Professor of Kanwon Univ. / ssyooj@kangwon.ac.kr

same title. 「Kyungyeon Diary」 is the title of woodblock printed-book for 「Yulgok collection」 but 「Seokdam Diary」 or 「Seokdam unofficial history」 was manuscript, not formal woodblock printed-book.

The author raised questions about system of published book and manuscript, and examined name and characteristics of 「Kyungyeon Diary」 and 「Seokdam Reminiscence」 through interpretation of woodblock printed-book. And the author drew a genealogical chart of compiler's thoughts by investigating when and what form 「Kyungyeon Diary」 was included in 「Yulgok collection」.

Accordingly, issues for woodblock printed-book of published book, 「Yulgok collection」 and manuscript system such as 「Seokdam Diary」 etc. were made clear. And an issue related to interpretation about including 「Kyungyeon Diary」 and 「Seokdam Diary」 to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Korean Munjipchonggan』 etc. could be somewhat investigated.

This paper can examine a diary style of awakening book of the people where Yulgok's academic knowledge, thoughts, moreover political ideology, vision about awakening of the people etc. are synthetically contained. The author compared system and ideological tendency of 「Kyungyeon Diary」 with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written by Sima Qian. For then sensitive, political problems, later Yulgok school scholars sensitively responded over selection of title. This is also the problem of then age as well as development of ideological tendency.

And as 「Kyungyeon Diary」 was also named as 「Seokdam Diary」 etc., it requires strict review on whether the diary is public or private, official or unofficial history relating to comments on figures and criticism.

【Key words】 Seokdam unofficial history, Seokdam Diary, Kyungyeon Diary, publishing process, unofficial history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6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
--